

올바른 녹용 구별법

최근 불량한약재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녹용에 대한 품질 구별법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녹용의 품질은 그 종류, 사슴의 발육상태 뿐만 아니라 수용(受茸) 및 가공기술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현재 유통되고 있는 녹용의 종류와 가공, 선택법에 대해 게재한다.

□ 녹용의 품질 및 종류

녹용의 품질과 상품가치는 심사의 표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. 따라서 녹용의 품질이 우수해야만 소득의 증가도 가져올 수 있어 현재는 녹용 수입 상대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양육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.

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녹용은 그 산지에 따라 크게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북미산으로 구분된다.

① 러시아산(元鹿, 梅花鹿)

러시아산은 녹용이 대체로 크고 뿔의 골질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선호하는 녹용이 생산된다.

○ 원록(元鹿) : 원록은 마록을 기원동물로 하고 러시아내에서도 산지에 따라 크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② 중국산(갈갈이, 梅花鹿, 二枝梅)

중국도 러시아와 같이 국토가 광활하여 기후후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구의 대소, 뿔의 대소, 형태 등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산과 구별이 된다.

○ 갈갈이 : 갈갈이는 마록(馬鹿)을 기원동물로 하고 중국의 동북지방, 신강(新疆)지

방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.

○ 매화록(梅花鹿) : 매화록을 기원동물로 하며 체구가 마록보다는 훨씬 작으므로 뿔도 작고 가지(分枝)수도 적다.

○ 이지매(二枝梅) : 이지매(녹용)의 기원동물은 매화록의 변종으로 체구가 작고 2지(二枝) 이상 분지되지 않고 중국에서 선호되는 상품이다.

③ 뉴질랜드산

뉴질랜드녹용은 적록계(赤鹿系) 사슴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로 체구가 작고 뿔도 작은 것이 특징이다.

④ 북미산

미국대륙 캐나다 등지에서 서식하는 대형의 사슴으로서 뿔도 비교적 큰편이나 질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□ 녹용의 외부형태학적 관찰

① 뉴질랜드산

털은 담황갈색이고 0.7mm 길이로 하대로 갈수록 길어진다. 상부 7cm 정도에서 분지를 형성한다.

② 중국산 매화록

털은 담황갈색이고 촉감이 매우 매끈하고 상부 10cm 정도에서 분지형성, 중·하대에 내경 0.2~0.6cm 가량의 흑이 가끔 존재한다.

③ 중국산 마록

털은 회갈색이며 매화록에 비해 훨씬 갈갈하고 상부 17cm에서 분지가 형성된다. 매화 녹용에 비해 크기가 훨씬 크다.

④ 러시아산

털은 담황갈색이며 상부 40cm 정도에서 분지 형성된다. 표면이 매우 굴곡이 심한 것이



특징이다.

⑤ 알래스카산

알래스카산 녹용의 털은 회갈색과 암갈색으로 길이가 매우 길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으로 주변 조직과 해면조직의 차이가 없고 전체가 해면상인 것이 특징이다. 암·수 공히 뿔이 나오는 순록뿔로 녹용으로서 가치가 없다.

□ 녹용 선택법

① 사슴뿔의 형태 및 구조

사슴뿔은 크게 두가지 유형의 무리로 분류되는데 진사슴 무리와 흰꼬리 사슴무리로 나뉜다. 진사슴무리의 뿔은 이마가지뿔과 육경으로부터 분지되고 이 주지(主枝)에서 1,2차 가지뿔과 정상가지뿔 로열 서로열 방호 가지뿔로 분지된다.

흰꼬리 사슴무리의 뿔은 밑덧가지뿔과 주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 주지로부터 앞가지뿔 뒷가지뿔 및 뒷가지뿔이 분리되어 있다. 순록 무스 뿔 등이 여기에 속하나 녹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녹용의 기원동물인 매화록과 마록등은 그 뿔의 구조면에서 진사슴무리의 뿔에 속하므로 그 뿔이 육경으로부터 분지하는 형태를 취한다.

② 녹용과 녹각

사슴의 뿔은 흔히 녹용과 녹각으로 구분되는데 녹용이란 사슴의 뿔이 성장중이어서 벨벳의 표피가 있는 연한 상태의 것이며, 녹각이란 각질화되어 벨벳표피가 탈피된 상태의 것을 가리킨다.

③ 녹용의 가공

녹용의 품질은 사슴의 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수용(受茸) 및 가공기술에 의해 결정된다. 또한 가공공정에서 복잡한 생리적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론적인 근거는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. 녹용의 가공은 추혈(抽血) 자작(煮炸) 증기멸균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.

녹용의 주 가공목적은 탈수 및 건조에 의한 부패방지와 녹용의 형태, 색채 등을 그대로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.

(한의신문, 2000. 5. 22.)